

# 새단장 끝난 '순천만 정원' 놀러오세요

19일 정홍원 총리 참석 개막식

20일부터 연중 개장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순천만 정원 전경.

'순천만 정원'이 오는 20일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정원'이라는 테마로 영구 개장한다.

순천시는 19일 오후 5시부터 순천만 정원 잔디마당과 3개의 봉화언덕, 수변부대 일원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인사와 시민 등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정원' 개막식을 갖는다. 관람객 입장권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개막식은 식전행사와 공식행사, 식후공연으로 나눠 진행된다. 식전 행사에는 홍보 동영상 상영과 중국 영파시 예술단 공연, 일렉트릭 현악 4중주단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정원문화 교류 협력추진을 위해 프랑스 소롱 박람회와 MOU를 체결해 상호 발전적 방안을 모색한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

는 순천시장의 개회 및 경과보고, 도시사 환영사, 국무총리 축사, 유명 연예인 및 시민들의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봉화언덕 능선에서는 뿌리페

예술단과 순천 시립합창단의 비전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진다. 본 행사에는 인기 가수 김장훈의 특별공연도 준비돼 있다. 식후공연에서는 배일호 등 국내 유명가수가 다수 출연하는

축하쇼 공연이 펼쳐져 개막식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20일 열리는 개장식에는 최초 입장객 꽃다발 수여와 군악대 연주, 모터 페어글라이딩 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

와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순천시는 관람객 편의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PRT(스카이 큐브) 운행, 주요 동선 시설 등을 마무리했다. /순천=예정열·김은종 기자 jyj@



## 여수 갯가길 2코스 19일 개장

돌산읍 무술목~방죽포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옛길을 복원해 만든 갯가와 숲길 조화를 이룬 '여수 갯가길' 두 번째 코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사단법인 '여수갯가'는 오는 19일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에서 방죽포에 이르는 '여수 갯가길' 제2코스를 개장한다.

갯가길 2코스는 여수 돌산읍 무술목을 출발해 계동과 두문포를 거쳐 방죽포 해수욕장에 이르는 5개 구간으로 이뤄졌다. 전체 길이는 17.8km이며 완주하려면 5시간 정도 소요된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 바다 위로 간간히 떠있는 작은 섬들은 '갯가길'들에게 걸기의 재미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나무 병풍을 두른 해수욕장을 비롯해 갯벌 체험장, 풍물밭, 너럭바위, 아이비 군락지 등이 준비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이 구간에는 이국적 풍광을 자아내는 등대길과 국내 최장 2km에

달하는 비렁길 등이 놓여 갯가길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국내 걷기길 안내관에 처음 적용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인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하면 2코스 전체와 구간별 지도와 이야기, 대중교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제1코스 개장과 12월 여수밤바다 코스 개장 이후 제2코스 개장을 준비해 온 사단법인 여수갯가는 지난 1월 중 코스 설계를 마치고 현장작업을 진행했다.

코스중 위험 구간에 계단과 안전 밧줄을 설치하고 친환경 매트를 깔아 '갯가길'의 안전한 걸기를 지원한다.

현재 막바지 안내판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무술목 해양수산과학관 주차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장한 돌산공원~무술목 간 제1코스는 매 주말 1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걷기길의 진수를 체험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차세대 태극전사 전남서 싹틔운다

전남축구 영재센터, 골든에이지 프로그램 운영

전남 축구 영재센터가 올해 18차에 걸친 '대한축구협회(KFA) 골든에이지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유소년 축구선수 발굴과 기술향상에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축구 영재센터는 15일 보성 생태공원 축구장에서 11~15세 영재 유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2

차 골든에이지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축구 영재센터는 지난 1~2월 전임 우수지도자(감독 명재용) 1명과 지역 지도자(코치 기운열 외 4명) 5명 등 총 6명을 선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차에 선발된 유소년들은 ▲11~12세 25명 ▲13세 25명 ▲



15일 보성군 생태공원 축구장에서 골든에이지 영재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4~15세 25명 등 총 75명(여자 5명 포함)이다.

선발된 유소년 축구선수들은 앞으로

전국 20개 시·군 지역센터 및 5개 권역 광역센터 등과 상호교류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아시아와 세

계대회에 참가해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쌓게 된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전북



## "봉사가 곧 행복이죠"

남원시 '어르신 자원봉사단'

난타·인형극 등 재능기부

"배우고 나누는데 나이가 필요 없어요. 배운 재능을 이웃에게 나누는 자체가 행복이죠."

남원시 노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최근 '어르신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능 나눔에 발 벗고 나섰다.

남원시 '어르신 자원봉사단'에는 난타와 댄스스포츠, 색소폰, 오카리나, 은빛실버합창단, 인형극, DSLR

(사진), 휴스랑 도예 등 8개 봉사단(13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복지관에서 배우고 연마한 재능을 각종 행사나 대회때 선보이게 된다.

몇몇 봉사단은 그동안 활동을 펼쳐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꿈꾸는 DSLR 사진 봉사단은 전주 포토페스티벌 사진 전시회에 참여해 실력을 뽐낸 바 있다. 난타 공연단은 17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올해 '직접 찾아가는 재가 서비스'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부안 마실축제' 다음달 3~5일 개최

바다와 들, 산이 어우러진 부안의 맛과 멋을 즐기는 '제3회 부안 마실축제'가 5월 3~5일에 부안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안의 서해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수산물을 싸게 파는 '이마당'이 펼쳐진다.

바닷가 갯벌에서는 가족이 함께 바지락과 조개를 캐는 '바다 속 보물찾기'가 진행된다. 간척지에서 키운 맛 좋은 감자를 직접 캐보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풍광을 마음껏 느끼

는 '마실길 걷기'도 열린다.

고사포 송림 숲에서는 캠핑족을 위한 '1박2일 힐링캠핑'이 마련된다. 마당극과 인형극, 유명 가수들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려 흥을 돋운다.

김원철 제천위원장장은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맛깔스러운 음식에 시골의 정겨운 감성을 더한 축제"라며 "방문객들 모두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 새만금 산단, 조선·해양레저 메카된다

군산시 38개 관련 기업과 MOU...2020년 완료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규모 조선·해양레저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15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38개 조선·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업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산단에 조선·해양레저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탱크테크 등 38개 기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새

만금산단 36만㎡에 1065억 원을 투자, 조선·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기업 보조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새만금 산단을 조성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지를 공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 설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군산대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전북 새만금 산화융합본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새만금 개발청은 조선·해양레저클러스터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성수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 새만금 조선·해양레저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면 조선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 '제10회 여성 한마음 전진대회' 성료

정읍농협 주최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은 지난 12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제10회 여성 한마음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여성 4인조 전자 현악그룹 '일렉트

이'의 식전행사로 시작된 이날 한마음대회는 여성조합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연예인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남영 조합장은 "이번 대회의 개최 취지는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정서함양을 위한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면서 "여성들의 성원이 정읍농협을 '일등농협'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여성의 힘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단신

'전주 국제영화제' 입장권 예매 시작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제15회 전주 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비롯해 시상식 등의 입장권 예매가 15일부터 시작했다. 일반 관객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전주 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를 통해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 예매는

21일부터 전주 영화의 거리에 있는 '납작한 슬리퍼 ZIP&JIFF'에서 할 수 있다. 영화티켓 가격은 ▲개막식 예매가 15일부터 시작했다. 일반 관객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전주 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를 통해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 예매는

'춘향 선발대회' 내달 1일 남원 광한루원 앞

제84회 춘향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춘향 선발대회'가 5월 1일 오후 5시 남원 광한루원 완월정 앞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봄의 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춘향 선발대회에는 336명의 참가 신청을 해 서류심사와 1, 2차 예선을 거쳐 해외동포를 포함한 32명의 본선

진출자가 뽑혔다. 이번 대회는 경연 형식을 거쳐 오늘날의 춘향상(像)에 걸맞는 용모와 맵시, 예능, 교양 등을 겸비한 8명의 춘향(진·선·미·정·숙·현·해)의 동포 상·우정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서 22일 장애인날 기념 '아나바다 운동'

고창군과 (사)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고창군지회(회장 신옥)는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청소년 수련관 광장에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중인 의류와 완구류, 도서

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중고물품을 군민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고통을 나누고,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의(063-560-2881)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읍, 쓰레기 분리배출 매뉴얼 배부

순창읍사무소(읍장 양동엽)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부했다.

'순창읍 쓰레기 분리배출 이렇게 합니다'라는 제목의 매뉴얼은 ▲재활용 쓰레기 12가지 ▲음식물 쓰레기 2가지 ▲일반 쓰레기·대형 폐기물 2가지 ▲유해 폐기물 3가지 등 20가지의

쓰레기 분류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양동엽 읍장은 "일반 시부시의 경우 쓰레기의 80%를 재자원화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매뉴얼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